


<div>교훈 : 성실</div> <div></div>	가 정 통 신 문	제 2023 - 57 호
		담당 : 예체건강부
	청소년 약물오남용(마약류) 예방 안내	경기도 시흥시 장현순환로 100 ☎ (교무실) 031-365-8200 ☎ (행정실) 031-365-8207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서울 강남 지역 학원가 일대에서 무료 시음회를 가장해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수’를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넘어 뉴스로만 접하던 마약 사건이 생활 반경 안으로 들어왔다는 생각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이에 약물(마약) 및 유해 약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약물의 용어정리

약물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포함하여, 인간의 신체, 정신, 중추신경, 행동과 감정에 변화를 초래하는 모든 물질을 말함
약물오용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나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방된 약을 제대로 또는 지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함
약물남용	의학적 상식, 법규,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이탈하여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약물을 사용하거나 과잉으로 사용하는 행위
약물중독	약물 사용에 대한 강박적 집착, 일단 사용하기 시작하면 끝장을 보고야 마는 조절 불능, 해로운 결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상태로 심한 심리적 육체적 의존상태

2. 청소년 유해 약물

- ① 주류
- ② 담배
- ③ 마약류
- ④ 환각물질
- ⑤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 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 장애 등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
 - 청소년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
 - 습관성, 중독성, 내성 또는 금단증상 등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 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

3. 유해 약물 사용 시 나타나는 문제

신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발의 떨림, 발한, 불면,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남 - 장기적으로 마약을 남용하게 되면 뇌에 영구적 손상을 일으켜 정신병적 증상 및 조기 치매로 이어짐 - 과량 사용 시 협심증, 심장 부정맥, 간질, 혼수 등의 치명적인 상태가 될 수 있음 - 환각 상태에서 타살 및 자살을 할 수 있으며, 주사기 사용 시 간염이나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될 가능성이 커짐 - 정신적, 신체적으로 약물을 심하게 갈망하는 의존성이 생김 - 약물을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사용함에 따라 약의 용량을 늘리는 내성이 생김 -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위궤양 빈혈, 간 기능 저하, 암, 불임, 기형아 출산 등의 문제가 발생함 - 면역기능의 저하로 작은 염증도 심각해지고 회복이 늦어짐
정신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격 변화, 우울증, 불안, 발작, 의심증, 피해망상 등이 발생함
사회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독자들은 피해망상, 환각, 극도의 불안 상태에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각종 범죄에 노출됨 - 약물남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됨



학원가 의문의 ‘시음행사’ 알고 보니 마약 음료수

신종유형 발생경보 제5호

서울 학원가 일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수를 건넨 일당 검거 23.4.3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를 시음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는 학생들을 속여 마시게 하고, 부모의 연락처로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것이 알려지면 좋을 게 없지 않냐”
라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타인이 제공하는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은
음료수 등은 절대 음용 금지!!
이와 유사한 의심사례 발생 시
곧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위와 같은 사례의 피해자는 마약임을 알지 못하고
복용하게 된 경우로 처벌받지 않으니,
피해를 입으신 경우 반드시 112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2023. 4. 11.

시흥가온중학교장[직인생략]